

부담스러운 십계명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1~7]

불신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절을 방문하고 절의 스님들이 천주교 행사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그 쪽은 조금 통이 커 보이고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데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이래서 너무 편협해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딱! 부러지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단 자체는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들과 벽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신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편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기만 신이냐?”는 거죠. 그럴 때에 주로 언급되는 것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믿는 우리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십계명’이라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죠? 십계명! 좀 부담스럽습니까? 은혜롭습니까? 평소에 잘 안 느끼고 사시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면 잘 사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십계명이 마음에 걸리면 조금은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도 구약의 율법처럼 지금은 품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또 한가지 이유는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십계명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 때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배 순서중에 십계명을 늘 교독했습니다. 교독문 대신에 십계명을 교독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십계명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인지 확인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한지 두 달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두 달 사이에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던 기억도 있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물을 마셨던 기억도 있고... 좌우간 놀라운 기억이 대단히 많았던 두 달간입니다. 두 달만에 시내산에 오게 됐는데 특별히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는 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여러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했던 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대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분명히 이 산, 여기서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증거치고는 좀 이상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보여줄 증거를, 엄밀히 말하면 증거를 안 보여 주셨습니다. 그냥 “네가 그런 소리하던 말든 어쨌든 간에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리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가 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널 보낸 증거가 된다.”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것이 참 은혜스러운 것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아이를 실컷 키워봤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하고 물으면 황당해지죠. “그래 맞다.” 그랬는데 “증거 있어요?” 증거대라고 하면 어떡할랍니까? 혹시 그렇게 나오면 제시할 만한 증거물을 준비해두셨습니까? 아버지가 증거를 낸다고 출생신고서 가져오고 주민등록등본 갖다 대고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봤던 삼촌 할머니 다 불러와서 증인 세우고 이러면 모양이 좀 이상해지죠. 저는 증거 삼을 만한 것을 분명히 하나 해왔습니다. 우리 둘째 애 낳

고 난 다음에 머리가 하도 작아서 금방 태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작다는 것을 기억해 두려고 엄마 손을 머리 옆에 대어놓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요건 네 엄마 손, 이건 너 머리.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 앞에 이것들을 갖다 놓고 “봐라. 네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냐.” 하고 증거물을 갖다 대면 우스운 꼴입니다. 증거대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죠? 증거말 필요 없습니다. 빙긋이 웃고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커 봐라 알게 된다.” 그 애깁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사 하고 말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나를 만나러 여기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내산에 두 달만에 도착한 겁니다.

그 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자그마치 민수기 10장까지인데 장수를 계산해보면 약 60장 가까이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분량들이 뭐 때문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포도밭예요?

.....

마음대로 따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지 말고요? 광주리에 담지는 말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법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마음대로 베어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시장해서 뜯어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만 하지 말고요? 낫을 대지 말고요. 이런 규정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제일 애용하는 구절은? 결혼하거든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집에서 결혼한 그 아내를 기쁘게 해 주라. 얼마동안요? 1년간요? 그런 것 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 참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저도 신혼시절에 그 구절만 외우고 다녔죠. 실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셨는데 새벽기도 좀 안 나가면 어떨라구... 이러면서 담대하게(?) 새벽기도 잘 안 나갔는데 그게 1년간이 아니고 기간이 많이 늘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구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신혼부부가 새벽기도 나오는 건 참 대단합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명하신 말씀들이 약 60장에 걸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합니까?

십계명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이 기록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서론 부분과 본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십계명의 본론 부분 뿐입니다. 서론을 자꾸 잊어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죠?

성경 앞장.

예? 성경 앞장예요? 성경 앞장에는 없을 텐데요? 찬송가 앞에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찬송가 어딘가 십계명이라고 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고 점... 찍힌 찬송가 많죠? 십계명 서문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증겁니다. 아예 없는 찬송가도 있죠? 십계명이란 제목을 달아놓고 바로 ‘제 일은...’이라고 적힌 찬송가 있죠? 더러 있을 겁니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십계명을 달아놓은 찬송가는 갖다 버리십시오. 서문을 완벽하게 기록해놓지 아니하고 ‘나는’ 하고 점찍고 처리한 것조차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요? 십계명 서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을 빼놓고 보면 밑에 계명 열 가지는 그렇게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서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옛날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1년 동안 강의를 위해서 두꺼운 책을 사라고 해놓고 1년 동안 서론 강의밖에 안 했어요. 서론만 갖고 1년간 강의를 합니다. “교수님 이 책 언제 뽕 집니까?” “응 서론만 하면 돼” 서론만 분명하게 익혀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읽으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책의 서론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분명하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서론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의 서론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론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3-8)

무슨 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계약처럼 보이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줄인 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20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요?

너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죠?

종.

종이 되요? 누구의 종요? 하나님의 종도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 동네의 종되었던 걸 붙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네요? 그래도 괜찮습시다만 같은 값이면 느낌이 좋은 표현을 씁시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더라는 선언을 하시고 계명 열 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론과 본문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서론없이 하나님께서 계명 열 개를 주셨다면 얘기가 이렇게 되죠.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달라요.

너희는 내 백성이더라고 선언해 놓은 다음 계명 열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서론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더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백성답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된 것이 먼저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는 차이입니다.

서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계명 열 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훨씬 큼니다. 서론은 비록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일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을 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이 십계명 열 가지에 눈을 먼저 돌리면 안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요즘이야 뭐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좀 시키죠. 일부

러 고생시키는 것은 접어두고 보통 몇 달간은 함께 살게 했다가 내보냅니다. 이왕 몇 달 뒤에 내보낼 거 바로 내보내지 왜 몇 달간 붙들어 놓죠? 한식구가 되었으니 이 집안의 풍습을 좀 익히고 적응을 하라는 애 기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나중에 서로가 편하다는 애깁니다. 내 식구가 되었으니 새 집의 가풍을 익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반발하고 뛰쳐나가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나를 이 집 식구로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야 한가쪽으로 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장모님 장례 치를 그 때에 우리 조카 한 녀석이 삼성전자에 취직을 해서 장례식 끝나고 다음날 오리엔테이션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어려운 때에 참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갔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찌면 저 집에는 복도 많다 이려고 있는데 애가 그걸 진정 복도로 생각하고 얼마쯤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참으로 행복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활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직장생활에 비하면 바쁜 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오는 그 답답함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회사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보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그래도 취직해서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그 모습을 잊지 않으면 회사생활 하기가 참 편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있으면서 학년 초에 새로운 아이들 만나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기본적인 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학생들도 아무 때나 침을 뱉고... 저는 여학교가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것을 여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형제가 전부 남자들밖에 없는데다가 남자학교만 돌아다니다 처음으로 여학교에 발령이 났는데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었죠. 마지막엔 여학교에 몇 년 있다가 나오게 된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학생들이 어찌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여학교는 좀 다르리라 했는데 안 그렇더라구요. 어느날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선생님들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안되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칩시다. 교칙에도 없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함부로 침 뱉어서 안된다. 실내화와 운동화를 구분해라는 이런 종류들만 쪽 뽑아 프린트해서 나누어주고 애들 군기를 잡기 시작했죠. 저도 그 방면에는 못됐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잡아서 벌주기 시작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보통은 이런 일을 잘 안합니다. 심할 때는 남학생 1, 2, 3학년 천명이 넘는 숫자를 저 혼자서 다 막았습니다. 그러려면 욕을 엄청나게 먹어야 합니다.

여학교에서 일단 설명하고 가르치고 난 후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제게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학기초에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숨이 탁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할 수 없는 일이더냐?”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만 하라는데도 어쨌건 숨이 탁 막히더라고.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데요. 교무실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이건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 노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들겨요. “애 그냥 들어와” 해도 들어올 때마다 두들겨요. 가까이 앉아 있는 선생님은 입이 아파요. 그래서 “교무실 들어갈 때 노크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선생님 찾으시면 된다.” 이게 어떻게 숨이 막히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침 뱉지 마라. 복도에서 뛰지마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숨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잠시 숨이 막힐런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학교 입학해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나 하는 생각이 먼저 와야 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불러서 심부름 한번 시키면 그게 고마워서 죽을동 살동 뛰어다녔는데 요새 아이들 심부름 한번 시켰다가는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참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즐거울 수 있고 그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낙이 없는 겁니다.

서문과 본론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애깁니다. 이런 비유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한쪽 집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안된다. 그런데 뭐 아무리 부모가 반대한다 해도 자식에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기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허락하는 대신에 조건이 딱 한가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느낌이죠? 까짓 조건이야 몇 개가 되든 그 앞의 한 마디에 감격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런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반복이지만 한번 더 얘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이만큼 해줬다. 그러니 너희는 계명 열 가지 이거만 지켜라. 그 중에 무리한 계명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놔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다음 “너희는 나만 섬겨라” 이것 뭐 잘못됐습니까?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청춘남녀가 결혼하면서 “당신은 이제 나만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머지 십계명 열 가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낳은 자식보다 양자로 데려온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잘 들어요. 왜요? 혹시나 말 안 듣다가 쫓겨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참 말 안 들어요. 조금 크더니 요새는 반말 톡 톡 하다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쭈어 박히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방문 열었더니 제 친구 하나 와 있는데 반말을 툭툭 하길래 “너 이리와” 하니까 안 와요. 그나마 “너 안 오고 이따가 두 방 맞을래 지금 한방 맞을래” 해서 할 수 없어서 한 대 쭈어박긴 쭈어박았지만 낳은 자식 말 참 안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정 안되면 이 정도 배짱이라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날 어쩔겁니까? 하는 배짱을 가지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늘 그러지 마십시오. 한 대 두들겨 맞을 수는 있어요. 한 대 두들겨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어찌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으니까요. 서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너 이놈 다시 애굽에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 한 번 자녀로 삼으셨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십계명의 서론을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게 아휴 가지, 못 하는 게 한 가지, 그러면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잘 하는 거 아휴, 못 하는 거 한 개, 그러면 싸움 납니까? 안 납니까?

싸워요.

왜요? 잘 하는 게 아휴인데 왜 싸워요? 못 하는 것 한 개만 자꾸 보거든요. 성질 되게 돈거든 잠깐만 숨을 돌리세요. 그것을 가라앉힐 만한 장점들을 찾아보세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삼았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찬찬히 살펴보면 잘 하는 것이 많습니다. 늘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한다고요? 공부 잘 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오천 명일 때 전국의 중학교가 학급수로 이만을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급당 하나도 안 돌아가네요. 학급의 일등만 모인다고 해도 4:1이죠. 1등만 잘 합니까? 2등은 못 하나요? 2등까지 집어넣으면 8:1입니다. 학급의 1등 2등은 쉬운 줄 아십니까? 학급의 10등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모는 자꾸 내 자식 하나만 보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 교실에서 쳐다보면 때로는 40등짜리도 고마울 때가 참 많아요. 공부 잘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부 공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나마 건강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자식이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공부만 제외하고 건강한 것 만으로도 참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은 다 접어놓고 자꾸 욕심을 내는데 끝이 없어요.

1등짜리 부모는 만족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일등하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1등이 몇 십 등이 되고 또 몇 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십계명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십계명은 부담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열 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삼백육십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못 지켜요. 사람이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켜냅니까? 자기 말마따나 잘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해버리셨거든요. 이유는 십계명의 서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뭐만? 그 규정 하나하나만 지키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깁니다. 설령 그것을 확실하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하라는 대로 정말 잘 해요. 정말 말 잘 듣고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 경우가 있어요. 재가 왜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해서 유심히 보니까 쫓겨날까 싶은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말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섭섭해집니다. 왜요? 아직도 재가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상관없이 오로지 그 계명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행위는 유대인이 볼 때는 계명을 완전히 짓밟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서론을 잊어버리고 계명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죠. 둘째는요?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잘 살리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거냐를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답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참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외우라 하면 잘 안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글자가 한자씩 바뀌기는 하지만 십계명의 서문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걸 대단히 강조하고 즐기까지 합니다. 찬송가에 십계명 서문이 제대로 안 붙어 있는 찬송가는 버리십시오.

신대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이번 시험에는 성경 원문이 한 절 나옵니다. 해석하고 1년 동안 배운 걸 밑에다 쓰시오. 정 뜻을 모르면 10분쯤 뒤에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아 들었어요.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한 줄쯤 나왔어요. 아는 글자도 몇 개 있네. 뭐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 보니까 어 이거 십계명 서문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십계명 서문 맞아요. 어찌나 반갑든지요. 외우고 있는 구절이니까. 신나게 써내려가는데 10분쯤 뒤에 설명을 해주겠다고 교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묻는 거 있죠. 좀 싱겁더라구요. 괜히 좋아했나?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남도 다 아는 거 괜히 좋아했나 좀 섭섭하더라구요. 어쨌거나 써놓고 나왔는데 나와서 물어봤어요. “그 본문 해석했냐?” 해석한 사람이 절반이 안되요. “묻지도 안 했어?” “글쎄 누가 물어보면 싶었는데...” 절반 이상이 그걸 해석도 안하고 쓴 거예요. 문제는 나와 있어요. 1년동안 배운 거 다 쓰라 했으니까 본문과 상관없이 소신껏 쓰면 됩니다.

배우지 않은 본문이 시험에 나온다더니 하필 그걸 시험지에 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교의학이란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오로지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히브리 원문을 하나 낸다 했지만 뭐 낼지 그건 알 수 없는데 하필이면 이걸 낸 이유가 이해가 되요. 안그래도 그런 교수님을 쳐다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 시험을 치르고 나니 더욱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에만 집착하면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 집착할 게 아니라 서론을 보면서 서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충실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때라도 또 서문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서 넘어졌고 잘못했지만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고 자식으로 삼으셨으니 어찌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나면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애용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은 용서하시겠지요. 세 번 네 번쯤 되면 한 대 얻어맞을 수는 있겠죠. 얻어맞을 수는 있을지언정 다시 내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선언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순서대로 쓰라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왜요? 그것 뭐 중요합니까? 학교교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교칙을 전혀 몰라도 전혀 어기지 않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항상 서론을 애용하고 이런 서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